

원하이텍, 더 큰 성장을 위한 제3공장 신축 결정

- ▶ 생산 능력 확대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...매출액 증대 및 지역 사회 발전 기대
- ▶ 경기도 이천시에 약 1만 2천평 부지 확보로 오는 2026년 1분기 준공 목표

<2024-09-25> 원하이텍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결정했다.

데크플레이트 전문 제조기업 원하이텍(192390, 대표이사 송자은)이 25일, 신규 시설투자에 관한 수시공사를 통해 제3공장 신축 및 설비시설 투자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.

투자금액은 토지 매입비용을 제외하고 약 125억 원이며, 투자지역은 경기도 이천시 지역으로 약 1만 2천 평의 부지에 공장신축 및 신규 설비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.

투자목적은 ▲생산 Capa 확대를 위한 제3공장 시설투자로 신규 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▲매출액 증대 및 새로운 고용창출 기회 창출 ▲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.

신규 공장은 2025년 초에 착공해 2026년 1분기에 준공할 예정이다.

원하이텍 송자은 대표이사는 “금번 인프라 투자 결정은 더 큰 성장을 위한 것으로 향후 생산 능력 확대, 신제품 출시, 제품 다변화 등 지속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원하이텍은 2011년 윈스틸 강건재 사업부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됐으며, 데크플레이트 차별화 제품 개발 및 효율적 생산 인프라 구축으로 지속 성장을 통해 201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. 꾸준한 수주 및 원가절감으로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350억 원, 영업이익은 62억 원, 전분기 대비 각각 9.7%, 39.9% 상승했다.